

PVA, 원료가 상승으로 곤혹

VAM수입가 1250달러 돌파 ... PVA 수요는 3.3% 증가 그쳐

초산유도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내 PVA시장이 거둬들인 수요정체와 원료가 상승에 따른 가격연동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5년들어 메탄올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원료인 초산가격이 이를 반영치 않고 있어 시장악화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PVA 국내수요는 94년기준 1만5500톤으로 93년 1만5000톤에 비해 3.3% 증가했으나 94년의 석유화학회복세를 감안, 자연증가 수준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수요정체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 메탄올 가격폭등에 따른 초산가격 연동이 95년까지 이어지는 등 원료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PVA 시장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94년 세계 최대의 VAM 생산기업인 Hoechst Celanese의 초산공장 트러블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VAM 가격의 폭등과 MTBE 수요증가를 바탕으로 한 메탄올 가격급등이 국내 PVA 시장에 반영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PVA 수급추이		(단위 : M/T)			
구 분		1992	1993	1994	1995
공급	생 산	1,500	4,000	6,300	8,040
	수 입	14,500	11,000	8,450	7,080
	계	16,000	15,000	14,750	15,120
수요	내 수	17,000	15,000	15,500	15,500
	수 출	100	1,500	2,000	5,000
	계	17,100	16,500	17,500	20,500

자료) CRI

됐다.

95년5월 현재 VAM 수입가격은 톤당 1250달러로 94년5월 550달러에 비해 100%이상 상승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삼성BP화학의 초산공장 증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메탄올가격이 95년5월 현재 톤당 250달러이하로 급락하고 있는데도 중간원료인 초산과 VAM가격이 섬유쪽의 호황에 힘입은 TPA의 수요폭발로 이를 반영치 않는 등 95년에도 이렇다할 시장반전 요소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시장에 가장 민감한 일본의 PVA가격도 톤당 40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며 국제가격도 톤당 2500달러를 형성하는 등 국내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PVA가격은 95년5월 톤당 2500달러로 94년12월 1950달러에 비해 28.2%상승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VAM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95년말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돼 하반기에는 톤당 3000달러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편, 유일한 PVA 생산기업인 동양화학은 94년 한해동안 8000톤을 생산, 93년 7000톤에 비해 12.5% 증가했으나 수요정체로 2000여톤이상을 수출하는 등 수출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7/10>